

아시모리와
인연이 있는
인물전



친부는 아시모리번의 초대 번주 기노시타 이에사다

어려서 숙모 네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부부의 양자가 된 히데아키. 천하를 통일한 히데요시의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이었지만, 측실 요도도노가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낳자(1593) 입장이 급변합니다. 히데요시로부터 관백을 물려받은 도요토미 히데쓰구(히데요시 누나의 아들)는 할복하게 되고 히데아키 자신은 고바야카와 가문에 양자로 보내졌습니다. 히데요시가 사망(1598)하자 그 후 일본의 앞날을 결정지은 세키가하라 전투(1600년)가 발발했습니다. 도요토미의 은혜를 입은 다이묘들도 도쿠가와 측과 반도쿠가와 측(이시다 미쓰나리 등)으로 나뉘는 가운데 히데아키의 결단은 도쿠가와 측이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승리에 기여하여 오카야마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오카야마에서는 성과 성시를 확장하고 영토 발전에 힘썼지만 불과 2년 만에 병사하게 됩니다. 아직 20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小早川秀秋

Kobayakawa Hideaki

(1582년~1602년)

寂庵

Jaku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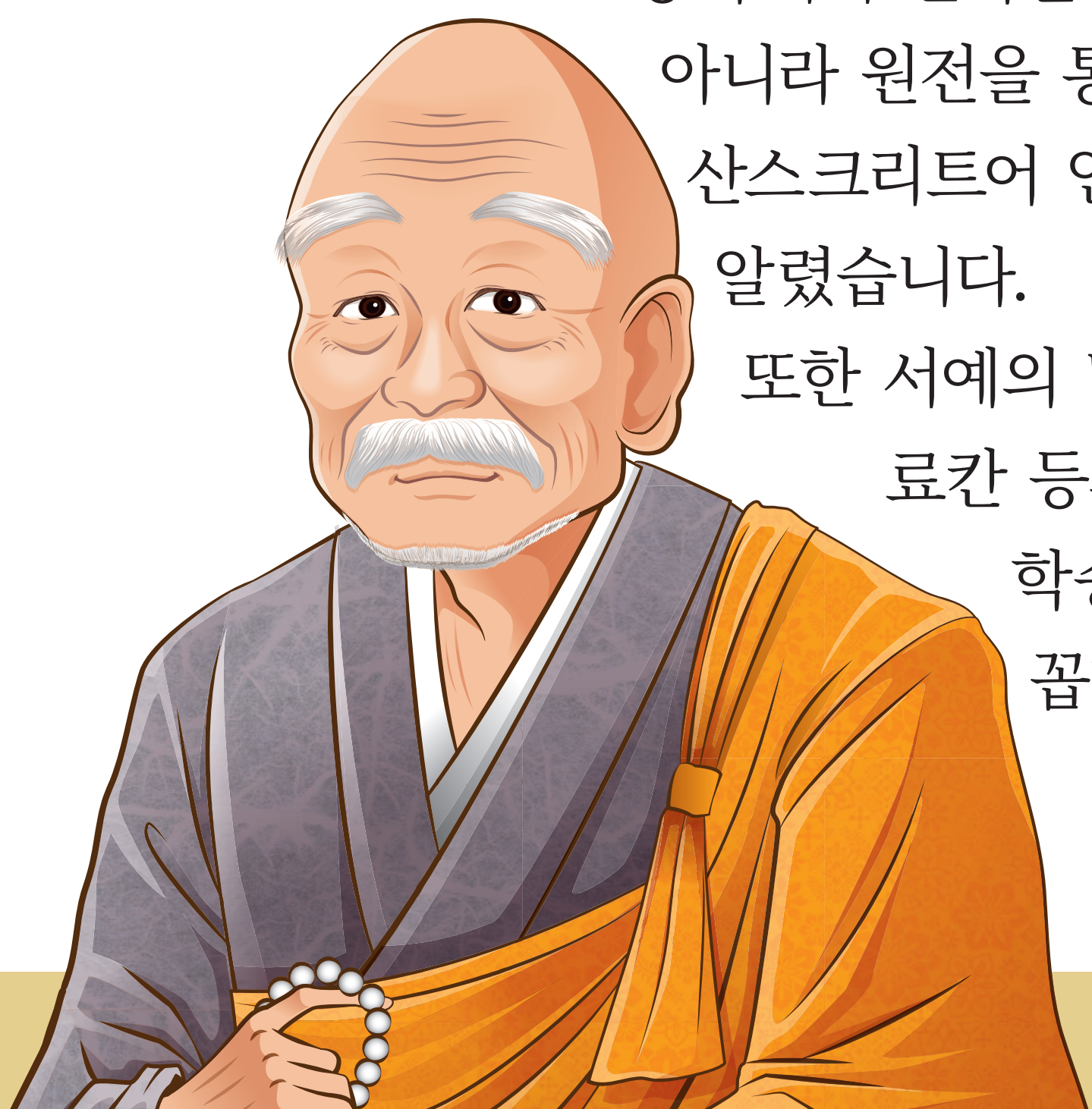
(1702년~1771년)

근세 4대 학승 중 한 명

에도 시대 중기(1681~1780)의 고승. 아시모리번 번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번역된 불교 경전이 아니라 원전을 통달하기 위한 산스크리트어 연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한 서예의 명필로 유명하며 료칸 등과 함께 근세 4대 학승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安富才助

Yasutomi Saisuke

(1839년~1873년)

※생몰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음

히지카타 도시조와 함께

아시모리번 출신으로 신센구미에 입대. 기마술에 뛰어났습니다.

보신 전쟁(1868~1869)에서는 아이즈에서 히지카타 도시조와 행동을 함께 했으며 하코다테에서 히지카타가 전사했을 때 최후를 지켜본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지카타 가문에 편지로 부고를 알린 인물도 사이스케라고 전해집니다.

